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I. 서론

- 참여정부는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방화와 세계화 전략으로서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지방분권, 수도권 발전전략과 함께 21세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핵심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이를 통해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경쟁력 증진을 통한 질적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 각 지역들의 역동적 발전 계기를 조성하여 국가혁신과 국토개조의 초석이 되도록 하는 의도를 갖고 있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2005)
-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의 수행에 있어 많은 시간과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임
  - 이용가능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효과는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모든 지역의 잠재능력과 국가역량을 극대화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 사업의 성격상, 향후 발생되는 지역경제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지역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됨
  - 먼저 첫 단계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개요 및 이의 경제효과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짐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분석방향이 결정되며, 다음 제 2 단계에서는 분석 모형이 설정됨
  -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설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분석됨
  -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결과가 요약 및 종합됨

## II.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개요 및 관련 연구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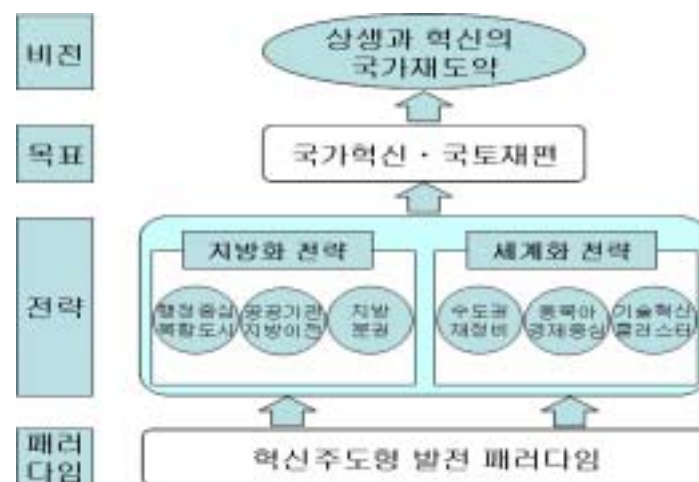
### 1.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개요

- 정부정책이나 개발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의 기본방향은 제시되기 때문임(김홍배 2003)
- 여기서는 주로 신행정수도연구단(2003)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2005a,b 등)와 행정자치부 고시자료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짐

#### 1)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의의 및 정의

- 과거 국가주도 경제성장 전략의 부산물로 나타난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이에 따른 지역간 격차의 확대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신행정수도연구단(2003)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경제력 및 인구 집중으로 혼잡(congestion)과 환경오염, 주택난, 지가상승, 난개발의 발생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수도권의 교통 혼잡비용이 2001년 기준으로 연 10.5조원이, 그리고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수도권 집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신행정수도연구단 2003)

- 정부의 대책은 주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인구유입억제'와 '인위적인 시설위주의 규제정책'에 국한되었다고 평가됨
- 다시 말해, 그동안의 수도권 정책은 非수도권을 발전시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데 치중한 소극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이외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추진체계와 체계적인 법·제도적 기반의 미비에 따라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일관성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혁신주도형 발전 패러다임(innovation-driven paradigm)에 기초해서 국가 및 국토운영의 틀을 개혁하여 국민통합과 국가 재도약 달성의 전기로 삼고자 하고 있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2005)
-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을 21세기 국가발전전략 중 지방화 전략의 핵심과제이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은 수도권 지역은 과밀해소와 경쟁력 증진을 통해 질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은 역동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음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2005).

[그림 1] 21세기 국가발전전략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이러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의미로 요약됨(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2005)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

② 수도권에서 중남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③ 수도권의 재정비

- 이를 통해 수도권 지역은 과밀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특히 서울의 경우 계획적 관리를 통한 세계일류도시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이 지역을 동북아의 경제중심(Hub)으로 성장시키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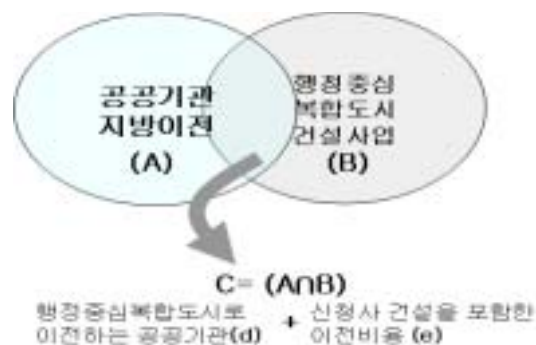
- 또한 지방의 경우 행정중심지로의 전환(충청남도)과 함께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 상승을 꾀하고자 함

- 즉, 전국이 상생(win-win)하는 국토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자 함

○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이전과 물리적 개발사업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임

-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중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규모에 따라 행정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 규모가 결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이 도시에 부여될 복합기능의 규모 역시 결정되기 때문임

- 다시 말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에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d)이 포함됨



[그림 2]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정의

-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개괄적인 내용이 소개됨
- 단, 수도권 재정비 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는 생략함

## 2)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내용: 사업비 및 공공기관 이전규모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은 기존 도시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연담화 우려가 없는 인구 30만~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립형 신도시를 충남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과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일원의 2,212만평에 건설하는 사업임( [그림 3] 참조)
- 또한 이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다기능 복합형 자족도시로 건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2005).

[그림 3]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예정지

- 2006년 1월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 개발사업의 규모 및 이에 따른 개발비용 등의 추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행정수도연구단(2003)의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기본구상안에 제시된 건설비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 왜냐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30만~50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2,212만평의 면적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행정도시의 수용인구 50만명과 개발면적 2,291만평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임
- 신행정수도연구단(2003)은 신행정수도의 건설비용이 총 45조 6,1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표 1> 참조)

**<표 1>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항목	비용(억원)	비고
<b>총사업비</b>	<b>456,130</b>	
I. 도시기반조성비		
1. 용지매입비	132,579	
2. 조성비	38,399	
3. 직접경비(인건비 등)	82,218	
4. 간접경비(금융비용 등)	1,930	(용지매입비+조성비)×1.6%
5. 일반관리비(부수적 경비)	7,210	(용지매입비+조성비)×8%
	2,823	(용지매입비+조성비)×5%
II. 광역교통기반시설	26,860	
III. 건축비		
1. 공공건축	255,224	
2. 민간건축	45,023	
	210,201	
IV. 예비비	41,466	( I + II + III)×10%

- \* : 신행정수도 연구원(2003).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규모(2005년 10월 5일 행정자치부 고시자료)

**<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규모**

구분	이 전 기 관		이전인원
중앙 행정 기관	12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10,374명
	4처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2청	국세청, 소방방재청	
기타 공공 기관*	18개 국책 연구원	경제사회연구원, 공공기술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기술연구원, 산업연구원, 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1,588명
합계	-		11,962명

- \* : 기타공공기관의 이전규모는 충남발전연구원(2005)의 자료를 적용함. 단, 여기서 개별  
이전 6개기관은 포함시키지 않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일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표 3>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2012	...	2030
준비 단계	입지선정										
	예정지역 · 주변지역 지정										
계획 단계	도시개념 국제공모										
	기본계획 수립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 (단계별)										
토지 매입	토지 및 건축물 조사										
	감정평가										
	토지매입										
건설 단계	도시기반조성 (단계적 개발)										
	청사건축										
	주택, 사업빌딩 등 민간건축										
이전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및 주변입주										



- 따라서 앞에서 제시된 개발사업 비용과 추진일정을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연차별 개발사업비용은 추산됨
- 본 연구에서는 이 결과와 공공부문 종사자의 이동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함
  - 단, 여기서는 먼저 관련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음

## 2. 관련 연구동향

-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수행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함(<표 4> 참조)
  -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짐
  - 이 중 충남발전연구원(2005)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한 것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효과를 분석한 사례들임
  -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방법론 상, 김의준(2003)과 전명진·허재완(2003)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투입산출(input-output, IO) 모형을 적용함<sup>1)</sup>
- IO 모형이나 CGE 모형은 모두 지역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산업들간의 연관관계를 바탕으로 개발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들임

1) IO 모형의 경우 전국모형과 지역모형으로 구분되며, 지역모형의 경우 역시 단일지역모형과 다지역모형(many-region IO model)으로 구분된다. 이들 사이의 차이는 지역간 · 산업간 연관관계를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가이다.

- IO 모형이 수요중심의 부분균형모형체계(partial equilibrium model framework)인 반면, CGE 모형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일반균형모형체계(general equilibrium model framework)이므로 개발사업의 효과를 보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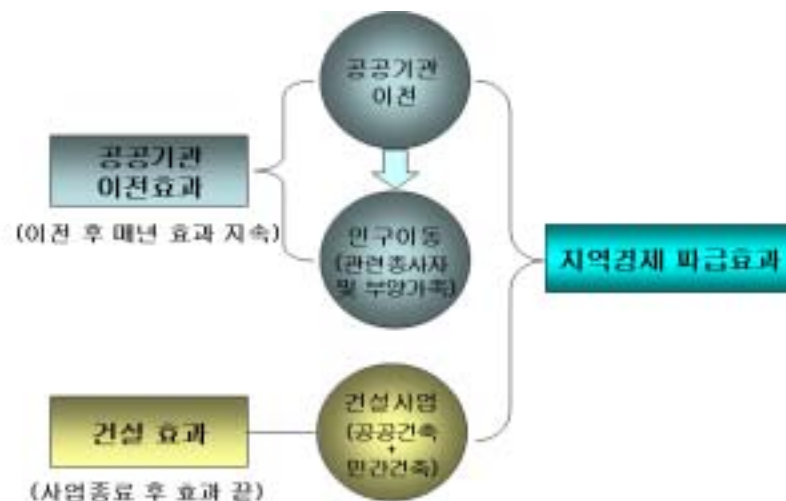
**<표 4> 관련연구 요약\***

구분	분석대상 또는 전제	분석방법	분석결과	비고
전명진·허재완(2003)	신행정수도건설로 인한 충남 인구 및 고용 효과	변형된 Lowry 모형	2030년 기준 충남 · 인구 48만명 증가 · 고용 약 8만 3천개 증가	인구이동효과 (관련부문 종사자 및 인구)
이동수(2003)	신행정수도건설비 54조원 · 건설비용: 27조원 · 토목비용: 21조 6천억원 · 사업서비스 5조 4천억원	1995년 산업연관표 (IO 모형)	· 생산유발: 129조 6천억원 · 부가가치유발: 46,355천억원 · 고용유발: 15만명	건설효과
장철기(2003)	행정수도 이전비용 30조원	정부제2청사 대전이전효과 유추	충청권 내 연간효과 · 생산유발: 2조원 · 고용유발: 2만 5천명	건설효과
김의준(2003)	신행정수도 건설 : '07-'11 집중, 2020년 종료 신행정수도 사업비: 37조 3,250억원 · 건설비: 26조 4,750억원 · 토지매입비: 10조 8,500억원	CGE 모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07-'20년 국내총생산에 변화 47조8,100억~48조4,100억원 (수도권과 중부권, 그리고 영·호남권의 효과 구분하여 지역별 효과 제시하고 있음)	건설효과
김선재(2004)	신행정수도 건설사업비 : 45조 6천억원	단일 지역 IO 모형	대전·충남 지역효과 · 생산유발: 74조원 · 고용유발: 55만명	건설효과
충남발전연구원(2005)	충남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 개발사업비: 8조 5천억원 · 이전규모: 2,709명 · 이전기관예산규모: 9,003억원	MRIO 모형	충남, 대전, 기타지역의 효과를 구분하여 생산, 부가가치 고용으로 구분 제시함	건설효과 + 공공기관 이전효과

- \*: 이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부문에서 행정도시 건설의 효과가 분석되었음.

-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발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함

- 즉,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은 청사건설을 포함한 복합도시의 건설(그림 2의 B)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함(그림 2의 d)을 통해 여러 가지 효과를 발생시킴
-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에서 건설효과(B)와 공공기관 이전효과(d)가 동시에 고려되어야만 함
- 특히 건설효과의 경우 개발사업 종료 후 그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반면, 공공기관의 이전효과는 지속적으로 발생함
- 즉,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주 효과는 공공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라고 할 수 있음
- 여기서 공공기관 이전효과 중 인구이동 부분은 관련 종사자의 이동과 수반되는 부양가족의 이동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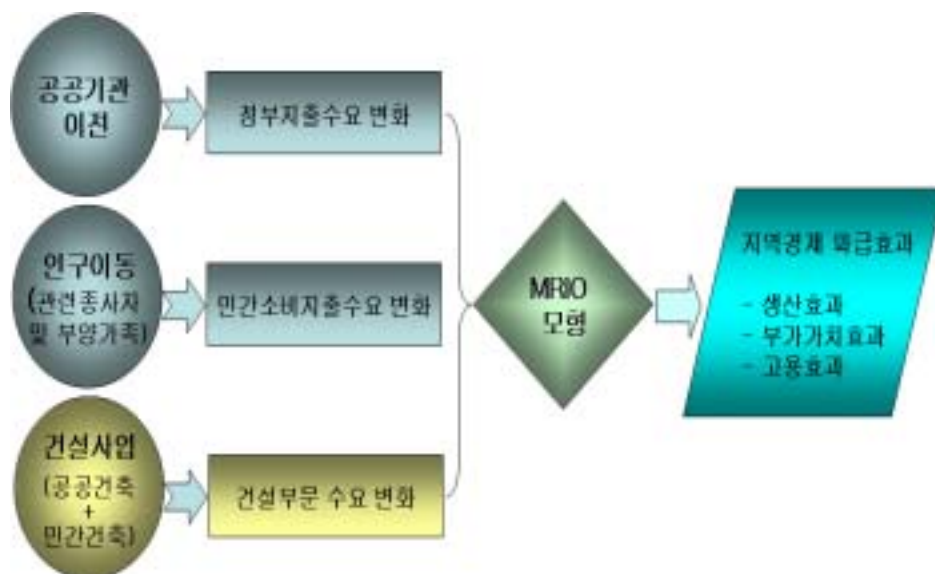
[그림 4]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효과 구분

- 그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물리적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사업비의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효과를 크게 두 가지 범주, 즉 건설효과와 공공기관 이전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함( [그림 4] 참조)

### III. 모형

#### 1. 분석과정 및 전제

- 일반적으로 CGE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이나 개발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그의 효과를 종합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가치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러한 특성 때문에 CGE 모형은 정책이나 개발계획의 효과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분석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차원에서 CGE 모형의 적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경제를 설명하는 많은 자료들이 요구되므로, 이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경우 분석결과의 현실적합성은 떨어짐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지역 투입산출모형(multi-region input-output, MRIO model)을 이용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함



[그림 5]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과정

- 다지역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본 연구의 분석과정은 [그림 5]에 요약된 바와 같음
  -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별 정부지출수요 변화와 그에 수반되는 지역간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별 민간소비지출수요 변화, 그리고 도시개발에 수반되는 건설부문 수요변화로 구분하여 분석이 진행됨
- 단,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효과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전제함
  - 먼저 본 연구에서 분석되는 모든 효과는 2000년 불변가격으로 제시됨
    - 왜냐하면 MRIO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위해서는 MRIO 표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표의 작성을 위해서 기본적 자료로 활용되는 가장 최근의 한국은행 전국 산업연관표가 2000년을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임
  - 그리고 사업의 효과는 2030년까지만 발생됨을 전제함
  - 다음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2030년 계획인구 50만명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음
    - 왜냐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와 부양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이동 규모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그리고 분석의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부문의 종사자와 부양가족은 2012년에 모두 이전 또는 이동하는 것으로 전제함
  - 이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관련된 건설비용의 연차별 배분은 <표 3>에 제시된 추진일정에 따라 연차별로 배분됨을 가정함

## 2. MRIO 모형

- MRIO 모형은 지역간 산업간 재화의 흐름을 나타내는 다지역 투입산출표를 바탕으로 지역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의 변화가 해당 지역경제를 포함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결과를 제시함
- 이러한 다지역 투입산출표의 구조는 [그림 6] 과 같음
  - 단,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국민경제는  $r$  과  $s$  의 두 지역경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지역 모두  $m$ 개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함

투입			배분	중 간 수 요								최종수요		총 산 출
				지역 $r$				지역 $s$				지역 $r$	지역 $s$	
				1	...	$j$	...	$n$	1	...	$j$			
중 간 투 입	지 역 $r$	1 ⋮ $i$ ⋮ $n$		$c_i^{rr} a_{ij}^r X_j^r$				$c_i^{rs} a_{ij}^s X_j^s$				$c_i^{rr} F_i^r$	$c_i^{rs} F_i^s$	$X_i^r$
	지 역 $s$	1 ⋮ $i$ ⋮ $n$		$c_i^{sr} a_{ij}^r X_j^r$				$c_i^{ss} a_{ij}^s X_j^s$				$c_i^{sr} F_i^r$	$c_i^{ss} F_i^s$	$X_i^s$
부 가 가 치	노동 자본			$w_j^r L_j^r$ $r_j^r K_j^r$				$w_j^s L_j^s$ $r_j^s K_j^s$						
총투입				$X_j^r$				$X_j^s$						

- $c_i^{rs}$ : 지역간 교역계수,  $a_{ij}^r$ : 투입계수,  $w_j^r$ : 임금,  $r_j^r$ : 자본수익률,  $F_i^r$ : 최종수요,  $X_i^r$ : 총산출액.

[그림 6] MRIO 표의 구조

## 1) 생산유발효과

- 앞의 그림 다지역 투입산출표의 구조에 나타난 재화의 배분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CAX + CF = X, \quad \dots(1)$$

$X$ : 지역별 산업별 총투입액 벡터( $nm \times 1$ ),  $F$ : 최종수요 벡터( $nm \times 1$ ),  
 $C$ : 지역간 교역계수 행렬( $nm \times nm$ ),  $A$ : 투입계수 행렬( $nm \times nm$ ),  
 $n$ : 산업부문의 수,  $m$ : 지역의 수.

- 위의 식(1)로부터 지역별 산업별 산출액과 각 산업별 재화에 대한 최종수요와의 관계는 식(2)와 같이 표현됨
- 이를 이용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최종수요의 변화가 각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구체적으로 측정됨

$$\Delta X = (I - CA)^{-1} C \Delta F \quad \dots(2)$$

-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이 각 지역 및 전국의 부가가치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부가가치승수(value-added multiplier)와 고용승수(employment multiplier)를 통해 계산됨

## 2) 부가가치 효과

- 부가가치 효과란 각 산업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 변화가 지역 및 국민경제의 부가가치액에 미치는 효과를 말함
- 이러한 부가가치 효과는 식(3)에 제시된 부가가치 승수에 의해 측정됨

$$\Delta V = V_f \cdot \Delta F, \quad V_f = A_v \cdot (I - CA)^{-1} \cdot C, \quad \dots(3)$$

$V$ : 부가가치,  $V_f$ : 부가가치 승수,  $A_v$ : 부가가치 계수.

### 3) 고용효과

- 고용효과란 각 산업제품에 대한 최종수요의 변화가 지역 및 국민경제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며, 이는 지역별 산업별 고용자 투입계수와 승수행렬의 곱으로 구해지는 고용승수를 이용하여 측정됨

$$\Delta E = W_f \cdot \Delta F, \quad W_f = E_w \cdot (I - CA)^{-1} C. \quad \dots(4)$$

$E$ : 고용,  $W_f$ : 고용 승수,  $E_w$ : 고용투입계수.

## 3. 다지역 투입산출표의 작성

- MRIO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MRIO 표가 작성되어야 함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지역 투입산출표가 공식적으로 조사·발표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한국은행(2003)에서 발표한 전국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Polenske(1980)가 제시한 간접적 방법을 통해 MRIO 표를 작성함

### 1) 지역 및 산업의 구분

- MRIO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문제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구분임
- 왜냐하면 지역의 구분에 따라 지역간 산업간 연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분석의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임
- 본 연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효과의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 전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된 지역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음



**<표 5> 지역의 구분**

구분		해당 광역행정구역
충청권	충청남도	충청남도
	대전 · 충북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수도권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기타 지역		충청권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 여기서 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고려됨

-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은 광역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므로, 효과의 공간적 범위는 전 국토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또한 사업의 효과는 직접적으로 이 도시가 위치하는 충청남도와 인근지역(대전광역시 및 충청북도)에 영향을 미치며,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행정기능이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

## 2) 산업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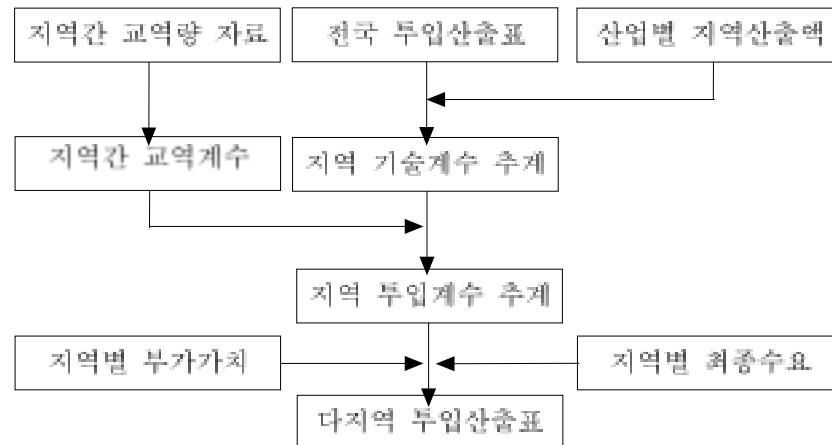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 MRIO 표 작성을 위한 산업의 분류는 2000년 기준 전국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03)의 77개 산업 중분류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구득 및 분석결과의 구체성 정도를 고려하여 총 15개 산업으로 구분함
- 구분된 각 산업에 해당하는 세부산업(77개 산업)은 <표 6>에 정리된 바와 같으며, 이 외 MRIO 표의 작성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6> 산업의 구분**

구 분	해 당 산 업
1.농림수산 및 광업	0001.작물 0002.축산 0003.임산물 0004.수산물 0005.석탄 0006.원유및천연가스 0007.금속광석 0008.비금속광물
2.음식료품	0009.육류및육가공품 0010.수산물가공품 0011.정곡및제분 0012.제당및전분 0013.빵,과자및곡수류 0014.조미료및유지 0015.과채가공품및기타식료품 0016.음료품 0017.배합사료 0018.담배
3.섬유, 가죽, 종이	0019.섬유사 0020.섬유직물 0021.의류및장신품 0022.기타섬유제품 0023.가죽제품및모피 0024.목재및나무제품 0025.펄프및종이 0026.인쇄,출판및복제
4.석탄, 석유 및 화학	0027.석탄제품 0028.석유제품 0029.유기화학기초제품 0030.무기화학기초제품 0031.합성수지및합성고무 0032.화학섬유 0033.비료및농약 0034.의약품및화장품 0035.기타화학제품 0036.플라스틱제품 0037.고무제품
5.유리 및 비금속광물	0038.유리제품 0039.도자기및점토제품 0040.시멘트및콘크리트제품 0041.기타비금속광물제품
6.철강 및 기계	0042.선철및강판제품 0043.철강1차제품 0044.비금속괴및1차제품 0045.금속제품 0046.일반목적용기계및장비 0047.기타특수목적용기계
7.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0048.전기기계및장치 0049.전자기기부분품 0050.영상,음향및통신기기 0051.컴퓨터및사무기기 0052.가정용전기기기 0053.정밀기기
8.자동차 및 수송기기	0054.자동차및부분품 0055.선박 0056.기타수송장비
9.가구 및 기타제조업	0057.가구 0058.기타제조업제품
10.전기, 가스, 수도	0059.전력 0060.도시가스및수도
11.건축 및 건설	0061.건축및건축보수 0062.건설
12.도소매,음식,숙박, 운수,보관, 통신 및 방송	0063.도소매 0064.음식점및숙박 0065.운수및보관 0066.통신및방송
13.금융,부동산및사업서비스	0067.금융및보험 0068.부동산 0069.사업서비스
14.공공행정,국방,교육및보건	0070.공공행정및국방 0071.교육및연구 0072.의료,보건및사회보장
15.문화, 오락서비스 및 기타	0073.문화오락서비스 0074.기타서비스 0075.사무용품 0076.가계의소비지출 0077.분류불명

#### 4) MRIO 표 작성과정

- MRIO 표의 작성과정은 [그림 7] 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음



[그림 7] 지역 투입산출표의 작성과정

##### (1) 지역기술계수의 추계

- 지역기술계수는 해당 지역의 생산기술을 나타내는 계수로서 중간투입재의 규모만을 나타낼 뿐,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 이입된 것인지는 구분되지 않음
- 지역기술계수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제품혼합법(product-mix method), 가중치기법(weighting method), 입지상계수법(location quotient method) 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식(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품혼합법을 이용하여 지역의 기술계수를 추계함
  - 제품혼합법이란 산업이 세밀하게 구분될수록 각 산업의 투입구조에 있어 지역간 차이가 없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지역기술계수를 추계하는 방법임

$$a_{ij}^r = \frac{\sum_k a_{ijk}^N \cdot x_{jk}^r}{X_j^r}, \quad \text{---(5)}$$

$a_{ij}^r$ : 지역의 기술계수,  $a_{ijk}^N$ : 전국의 투입계수,  
 $x_{jk}^r$ : 지역 내  $j$  산업의 세분된  $k$  산업의 산출액.

## (2) 지역간 교역계수의 추계

- 지역간 교역계수는 지역간 재화의 거래를 나타내는 계수이며, 지역간 교역계수를 추계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조사방법과 함께 중력모형, 엔트로피모형, 입지상(location quotient,  $LQ$ )법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 등으로 구분됨(한국개발연구원, 2000)
- 본 연구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1997)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간 물동량 자료를 바탕으로 교역계수를 추계함
  - 서비스 부문의 경우에는 단순  $LQ$ 법을 이용하여 추계함

## (3) 지역투입계수 추계

- 지역투입계수는 지역 내 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가 어느 지역 어느 산업으로부터 유입된 것인지를 나타내는 계수이며, 이는 식(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앞에서 설명한 지역기술계수와 지역간 교역계수의 곱으로 계산됨

$$CA = \begin{bmatrix} C^{rr} & C^{rs} \\ C^{sr} & C^{ss} \end{bmatrix} \cdot \begin{bmatrix} A^r & 0 \\ 0 & A^s \end{bmatrix}, \quad \text{---(6)}$$

$CA$ : 지역투입계수행렬,  $C^{rs}$ : 지역간교역계수행렬,  $A^r$ : 지역기술계수행렬.

- 그리고 지역별로 최종수요는 민간소비수요와 정부지출수요, 투자수요, 그리고 수출입 수요 등으로, 그리고 부가가치의 경우에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 그리고 간접세 등으로 구분됨

-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최종수요와 부가가치의 추계는 한국토지공사 (2004)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짐
- 이렇게 작성된 MRIO 표와 모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사업의 지역경제 효과는 구체적으로 분석됨
- 단, 이를 위해서는 최종수요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 장에서 이루어짐

## IV. 분석

### 1. 최종수요의 변화

#### 1) 정부지출수요 변화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따라 이전하게 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규모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11,962명임
-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 공공기관 종사자 이동규모가 곧바로 지역의 정부지출수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공공부문 종사자 수와 정부지출수요의 변화는 식(6)과 같이 선형관계에 있음을 전제함

$$g^r = G^r / L_G^r, \quad \dots(6)$$

$g^r$ : 공공부문 종사자 1인당 정부소비출액,

$G^r$ : 지역 내 정부소비지출액,  $L_G^r$ : 지역내 공공부문 종사자 수.

- 여기서 공공부문 종사자 일인당 예산액은 충남발전연구원(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sup>2)</sup>를 이용하며, 이를 통해 이동 종사자 규모를 바탕으로 지역 내 정부지출수요의 변화는 식(7)과 같이 계산됨

$$\Delta G^r = g^r \cdot \Delta L_G^r \quad \dots(7)$$

2) 공공부문 종사자 일인당 예산액(충남발전연구원, 2005)

이전대상 공공부문 종사자 (A)	예산액 (B)	일인당 예산액 (B/A)
2,709명	9,003억원	3,323억원/명

○ 앞의 식(7)을 통해 계산된 연차별 정부지출 수요변화는 <표 7>에 정리된 바와 같음

- 단, 표에 제시된 정부지출수요 변화액은 200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된 금액이며, 본 연구에서 현재가치화를 위해 적용한 할인율은 연 4%임

**<표 7>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정부지출수요 변화(2000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구분	'05-'06	'07-'11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도권	-	-	-24,830	-23,875	-22,967	-22,074	-21,225	-20,409	-19,624	-18,869	-18,143
충청권	충남	-	24,830	23,875	22,967	22,074	21,225	20,409	19,624	18,869	18,143
	대전·충북	-	-	-	-	-	-	-	-	-	-
	(소계)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전국계	-	-	-	-	-	-	-	-	-	-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17,445	-16,774	-16,129	-15,509	-14,912	-14,339	-13,787	-13,257	-12,747	-12,257	-339,164
충청권	충남	17,445	16,774	16,129	15,509	14,912	14,339	13,787	13,257	12,747	339,164
	대전·충북	-	-	-	-	-	-	-	-	-	-
	(소계)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전국계	-	-	-	-	-	-	-	-	-	-	-

- \*: 할인율 연 4% 적용.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됨에 따라 충청남도의 정부지출수요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총 33조 9,164억원이 증가하며, 반면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동일한 정부지출수요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됨

## 2) 민간소비지출수요 변화

○ 민간소비수요의 변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공공

기관 및 유관기관의 직원과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인구를 기초로 추정됨

-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총 이동규모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그의 의존인구로 구분됨
- 그리고 의존인구는 식(8)에 제시된 지역의 의존승수를 통해 계산됨

$$DR^r = \frac{P^r}{E^r} \quad \dots(8)$$

$DR^r$ : 지역의 의존승수,  $E^r(P^r)$ : 지역의 경제활동인구(인구).

- 본 연구에서 지역의 의존승수는 충남발전연구원(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결과를 적용함<sup>3)</sup>
  - 지역별 인구 규모 및 경제활동인구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공공기관 이전 출발지역(origin)인 수도권 지역의 의존승수는 2.2로 추정됨
    - 이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 1인당 1.2명이 의존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임
  - 그리고 민간소비지출 수요 변화는 앞서 설명한 정부소비지출 수요변화와 동일하게 인구이동 규모와 선형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도출될 수 있음
-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충청남도의 민간소비지출 수요는 총 2조 932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수도권 지역은 같은 기간 동일한 금액의 민간소비지출 수요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됨
- 각 지역별로 연차별 민간소비지출수요 변화는 <표 8>에 정리된 바와 같음

3) 충남발전연구원(2005)에 제시된 지역의 의존승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경제활동인구	인구	의존승수
충남 · 대전 지역	1,522천명	3,345천명	2.2
기타 지역	20,546천명	44,737천명	2.2
전국 계	22,068천명	48,082천명	2.2



**<표 8>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민간소비지출  
변화(2000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구분	'05-'06	'07-'11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도권	-	-	-1,530	-1,471	-1,415	-1,360	-1,308	-1,258	-1,209	-1,163	-1,118
충청권											
충남	-	-	1,530	1,471	1,415	1,360	1,308	1,258	1,209	1,163	1,118
대전·충북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전국계	-	-	-	-	-	-	-	-	-	-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1,075	-1,034	-994	-956	-919	-884	-850	-817	-786	-786	-20,932
충청권											
충남	1,075	1,034	994	956	919	884	850	817	786	786	20,932
대전·충북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전국계	-	-	-	-	-	-	-	-	-	-	-

- \*: 할인율 연 4% 적용.

### 3) 건설부문 수요 변화(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비)

- <표 1>의 각 항목별 사업비 자료와 <표 3>에 제시된 개발일정에 따라 배분된 연차별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비는 <표 9>에 정리된 바와 같음
- 단, 개발사업비는 충청남도의 건설수요만을 변화시키며, 200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 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비는 총 26조 3,632억원이며, 각 연차별 개발사업비는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음

**<표 9> 연차별 개발사업비(2000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연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발사업비	15,174		37,042	31,752	30,531	17,950	17,260	16,59.6	7,393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개발사업비	7,108	6,835	6,572	6,319	6,076	5,842	5,618	5,402	5,194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개발사업비	4,994	4,802	4,617	4,440	4,269	4,105	3,947	3,795	263,632

- \*: 할인율 연 4% 적용.

## 2.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금까지 설명한 지역별 연차별 최종수요의 변화를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분석됨
- 여기서는 분석된 결과를 생산효과, 부가가치효과, 그리고 고용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함

### 1) 생산효과

- 정부소비지출 변화에 의한 생산효과는 <표 10>에 정리된 바와 같음
  - 분석결과,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42조 614억원의 생산액 감소효과가 발생되며, 충청남도에서는 총 31조 9,803억원의 생산액 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기타 지역 모두에서 정부소비지출 수요변화로 인해 정(+)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2030년까지 총 1조 3,188억원의 생산액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 정부소비지출 수요변화에 따른 생산효과(2000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구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	-	-	-	-	-	-30,793	-29,609	-28,470	-27,375	-26,322	-25,310	-24,336
충청권	충남	-	-	-	-	-	23,413	22,512	21,646	20,814	20,013	19,244	18,503
	대전·충북	-	-	-	-	-	2,028	1,950	1,875	1,803	1,733	1,667	1,603
	(소계)	-	-	-	-	-	25,441	24,462	23,521	22,617	21,747	20,910	20,106
기타	-	-	-	-	-	-	4,387	4,218	4,056	3,900	3,750	3,606	3,467
전국계	-	-	-	-	-	-	-966	-928	-893	-858	-825	-794	-763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23,400	-22,500	-21,635	-20,803	-20,003	-19,233	-18,494	-17,782	-17,098	-16,441	-15,808	-15,200	-420,614
충청권	충남	17,792	17,108	16,450	15,817	15,209	14,624	14,061	13,520	13,000	12,500	12,020	319,803
	대전·충북	1,541	1,482	1,425	1,370	1,317	1,267	1,218	1,171	1,126	1,083	1,041	27,697
	(소계)	19,333	18,589	17,874	17,187	16,526	15,890	15,279	14,691	14,126	13,583	13,060	347,500
기타	3,334	3,206	3,082	2,964	2,850	2,740	2,635	2,533	2,436	2,342	2,252	2,166	59,926
전국계	-734	-705	-678	-652	-627	-603	-580	-558	-536	-515	-496	-477	-13,188

○ 인구이동에 따른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에 의한 생산효과는 <표 11>에 정리된 바와 같음

-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1조 6,036억원의 생산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생산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총 1조 2,182억원의 생산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는 총 716억원의 생산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에 따른 생산효과(2000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구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	-	-	-	-	-	-1,172	-1,127	-1,084	-1,042	-1,002	-964	-926
충청권	충남	-	-	-	-	-	891	856	823	792	761	732	704
	대전·충북	-	-	-	-	-	111	107	103	99	95	91	88
	(소계)	-	-	-	-	-	1,002	963	926	891	856	823	792
기타	-	-	-	-	-	-	118	114	109	105	101	97	93
전국계	-	-	-	-	-	-	-52	-50	-48	-47	-45	-43	-41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891	-857	-824	-792	-762	-732	-704	-677	-651	-626	-602	-602	-16,036
충청권	충남	677	651	626	602	578	556	536	514	494	475	457	12,182
	대전·충북	85	81	78	75	72	69	67	64	62	59	57	1,522
	(소계)	761	732	704	677	651	626	602	579	556	535	514	13,703
기타	90	86	83	80	77	74	71	68	66	63	61	61	1,617
전국계	-40	-38	-37	-35	-34	-33	-31	-30	-29	-28	-27	-27	-716

- 건설수요 변화로 인한 생산효과는 <표 12>에 정리된 바와 같음
  - 분석결과,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63조 91억원의 생산증가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수도권 지역의 생산효과는 총 26조 5,146억원이며, 기타 지역은 총 20조 2,661억원, 그리고 충청남도는 11조 8,329억원인 것으로 분석됨
  - 여기서 충청남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효과 중 상당부분이 수도권과 기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지역간 산업간 연관관계에 의한 것임
    - 즉, 충청남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충청남도 외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중간재(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임

**<표 12> 건설수요 변화에 따른 생산효과(2000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구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15,261	37,255	31,994	30,706	18,053	17,359	16,691	7,435	7,149	6,874	6,610	6,355	6,111
충청권	충남	6,811	16,626	14,252	13,703	8,057	7,747	7,449	3,318	3,190	3,068	2,950	2,836	2,727
	대전·충북	2,530	6,176	5,294	5,090	2,993	2,878	2,767	1,233	1,185	1,140	1,096	1,054	1,013
	(소계)	9,340	22,802	19,546	18,794	11,050	10,625	10,216	4,551	4,376	4,207	4,045	3,890	3,740
기타		11,664	28,475	24,409	23,470	13,799	13,268	12,758	5,683	5,464	5,254	5,052	4,858	4,671
전국계		36,266	88,533	75,888	72,970	42,902	41,252	39,665	17,668	16,989	16,335	15,707	15,103	14,522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5,876	5,650	5,433	5,224	5,023	4,830	4,644	4,465	4,293	4,128	3,970	3,817	265,146
충청권	충남	2,622	2,521	2,424	2,331	2,242	2,155	2,072	1,993	1,916	1,842	1,772	1,703	118,329
	대전·충북	974	937	901	866	833	801	770	740	712	684	658	633	43,955
	(소계)	3,596	3,458	3,325	3,197	3,074	2,956	2,842	2,733	2,628	2,527	2,430	2,336	162,284
기타		4,491	4,318	4,152	3,993	3,839	3,691	3,549	3,413	3,282	3,155	3,034	2,917	202,661
전국계		13,964	13,426	12,910	12,414	11,936	11,477	11,036	10,611	10,203	9,811	9,433	9,070	630,091

○ 지금까지 설명한 공공 및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와 건설부문의 수요변화를 통해 나타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생산효과를 종합하면 <표 13>와 같음

- 분석결과, 이 개발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61조 6,187억원의 생산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충청남도의 생산증가효과는 같은 기간 총 45조 314억원이며, 대전·충북 지역은 총 7조 3,174억원으로 분석됨

**<표 13>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생산효과 종합(2000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구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15,261	37,255	31,994	30,706	18,053	17,359	-15,274	-23,301	-22,405	-21,543	-20,715	-19,918	-19,152
충청권	충남	6,811	16,626	14,252	13,703	8,057	7,747	31,752	26,687	25,660	24,673	23,724	22,812
	대전·충북	2,530	6,176	5,294	5,090	2,993	2,878	4,906	3,289	3,163	3,041	2,924	2,812
	(소계)	9,340	22,802	19,546	18,794	11,050	10,625	36,658	29,976	28,823	27,714	26,648	25,624
기타	11,664	28,475	24,409	23,470	13,799	13,268	17,263	10,015	9,630	9,259	8,903	8,561	8,232
전국계	36,266	88,533	75,888	72,970	42,902	41,252	38,647	16,690	16,048	15,431	14,837	14,266	13,718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18,415	-17,707	-17,026	-16,371	-15,741	-15,136	-14,554	-13,994	-13,456	-12,938	-12,441	-11,965	-171,504
충청권	충남	21,091	20,280	19,500	18,750	18,029	17,335	16,668	16,027	15,411	14,818	14,248	450,314
	대전·충북	2,600	2,500	2,403	2,311	2,222	2,137	2,054	1,975	1,899	1,826	1,756	73,174
	(소계)	23,690	22,779	21,903	21,061	20,251	19,472	18,723	18,003	17,310	16,645	16,004	523,488
기타	7,915	7,611	7,318	7,036	6,766	6,505	6,255	6,015	5,783	5,561	5,347	5,144	264,203
전국계	13,190	12,683	12,195	11,726	11,275	10,841	10,424	10,023	9,638	9,267	8,911	8,567	616,187

## 2) 부가가치효과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부가가치 효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소비지출 수요변화에 의한 효과는 <표 14>에 정리된 바와 같음

- 분석결과,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6조 2,574억원의 부가가치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충청남도의 부가가치는 같은 기간 총 21조 687억원이 증가하며, 대전 · 충북 지역은 1조 4,091억원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충청권 전체적으로 총 22조 4,788억원의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4> 정부소비지출 수요변화에 따른 부가가치효과(2000년  
불변가격)**

(단위: 억 원)

구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	-	-	-	-	-	-19,223	-18,484	-17,773	-17,089	-16,432	-15,800	-15,192
충청권	충남	-	-	-	-	-	15,424	14,831	14,261	13,712	13,185	12,678	12,190
	대전·충북	-	-	-	-	-	1,032	992	954	917	882	848	815
	(소계)	-	-	-	-	-	16,456	15,823	15,215	14,629	14,067	13,526	13,005
기타	-	-	-	-	-	-	2,767	2,661	2,558	2,460	2,365	2,274	2,187
전국계	-	-	-	-	-	-	-	-	-	-	-	-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14,608	-14,046	-13,506	-12,986	-12,487	-12,007	-11,545	-11,101	-10,674	-10,263	-9,869	-9,489	-262,574
충청권	충남	11,721	11,270	10,837	10,420	10,019	9,634	9,264	8,907	8,565	8,235	7,918	210,687
	대전·충북	784	754	725	697	670	644	620	596	573	551	530	14,091
	(소계)	12,505	12,024	11,562	11,117	10,690	10,278	9,883	9,503	9,137	8,786	8,448	224,778
기타	2,103	2,022	1,944	1,869	1,797	1,728	1,662	1,598	1,536	1,477	1,421	1,366	37,796
전국계	-	-	-	-	-	-	-	-	-	-	-	-	-

○ 그리고 인구이동에 수반되는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에 의한 부가가치 효과는 <표 15>에 정리된 바와 같음

- 분석결과,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8,377억원의 부가가치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같은 기간 충청남도와 대전·충북의 부가가치는 각각 총 6,742억원과 728억원이 증가하여, 충청권 전체적으로 7,47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15>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에 따른 부가가치효과(2000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구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	-	-	-	-	-	-412	-589	-566	-544	-524	-500	-484
충청권	충남	-	-	-	-	-	493	474	456	438	421	405	390
	대전·충북	-	-	-	-	-	53	51	49	47	45	44	42
	(소계)	-	-	-	-	-	546	525	505	485	467	449	432
기타	-	-	-	-	-	-	66	64	61	59	57	55	52
전국계	-	-	-	-	-	-	-	-	-	-	-	-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465	-447	-430	-414	-398	-383	-368	-354	-340	-327	-314	-314	-8,377
충청권	충남	375	360	346	333	320	308	296	285	274	263	253	6,742
	대전·충북	40	39	37	36	35	33	32	31	30	28	27	728
	(소계)	415	399	384	369	355	341	328	315	303	292	280	7,470
기타	50	48	47	45	43	41	40	38	37	35	34	34	908
전국계	-	-	-	-	-	-	-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비를 통해 발생하는 건설부문 수요변화에 의한 부가가치 효과는 <표 16>에 정리된 바와 같음
- 앞서 설명한 생산효과의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부문 수요변화에 의한 부가가치 효과 역시 전국적으로 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11조 4,829억원, 기타 지역에서는 7조 9,012억원, 그리고 충청권 전체적으로 6조 9,791억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충청권 중 충청남도의 부가가치 효과는 총 5조 2,6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16> 건설수요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효과(2000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구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6,609	16,134	13,830	13,298	7,819	7,518	7,229	3,220	3,096	2,977	2,863	2,752	2,647
충청권	충남	3,030	7,396	6,340	6,096	3,584	3,446	3,314	1,476	1,419	1,365	1,312	1,213
	대전·충북	987	2,410	2,066	1,986	1,168	1,123	1,080	481	462	445	428	395
	(소계)	4,017	9,806	8,406	8,082	4,752	4,569	4,393	1,957	1,882	1,809	1,740	1,609
기타	4,548	11,102	9,516	9,150	5,380	5,173	4,974	2,216	2,130	2,048	1,970	1,894	1,821
전국계	15,174	37,042	31,752	30,531	17,950	17,260	16,506	7,393	7,108	6,835	6,572	6,319	6,076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2,545	2,447	2,353	2,262	2,175	2,092	2,011	1,934	1,859	1,788	1,719	1,653	114,829
충청권	충남	1,167	1,122	1,079	1,037	997	959	922	886	852	820	788	52,640
	대전·충북	380	365	351	338	325	312	300	289	278	267	257	17,151
	(소계)	1,547	1,487	1,430	1,375	1,322	1,271	1,222	1,175	1,130	1,087	1,045	69,791
기타	1,751	1,684	1,619	1,557	1,497	1,439	1,384	1,331	1,279	1,230	1,183	1,137	79,012
전국계	5,842	5,618	5,402	5,194	4,994	4,802	4,617	4,440	4,269	4,105	3,947	3,795	263,632



- 지금까지 설명한 공공 및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와 건설부문의 수요변화를 통해 나타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부가가치 효과를 종합하면 <표 17>과 같음
- 분석결과, 이 개발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26조 3,632억원의 부가가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충청남도의 부가가치 효과는 같은 기간 총 27조 69억원이며, 대전·충북 지역은 총 3조 1,970원으로, 충청권 전체의 부가가치 증가효과는 총 30조 2,039억원인 것으로 분석됨
-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지역의 부가가치는 총 15조 6,12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17>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사업의 부가가치효과 종합(2000년  
불변가격)**

(단위: 억 원)

구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6,609	16,134	13,830	13,298	7,819	7,518	-12,607	-15,853	-15,243	-14,657	-14,093	-13,551	-13,030
충 청 권	충남	3,030	7,396	6,340	6,096	3,584	3,446	19,231	16,781	16,136	15,515	14,918	14,345
	대전·충북	987	2,410	2,066	1,986	1,168	1,123	2,165	1,524	1,465	1,409	1,355	1,303
	(소계)	4,017	9,806	8,406	8,082	4,752	4,569	21,396	18,305	17,601	16,924	16,273	15,648
기타	4,548	11,102	9,516	9,150	5,380	5,173	7,807	4,940	4,750	4,567	4,392	4,223	4,060
전국계	15,174	37,042	31,752	30,531	17,950	17,260	16,596	7,393	7,108	6,835	6,572	6,319	6,076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12,529	-12,047	-11,583	-11,138	-10,710	-10,298	-9,902	-9,521	-9,155	-8,802	-8,464	-8,130	-156,122
충 청 권	충남	13,262	12,752	12,262	11,790	11,337	10,901	10,481	10,078	9,691	9,318	8,960	270,069
	대전·충북	1,204	1,158	1,114	1,071	1,030	990	952	915	880	846	814	31,970
	(소계)	14,467	13,910	13,375	12,861	12,366	11,891	11,433	10,994	10,571	10,164	9,773	302,039
기타	3,904	3,754	3,610	3,471	3,337	3,209	3,086	2,967	2,853	2,743	2,638	2,537	117,716
전국계	5,842	5,618	5,402	5,194	4,994	4,802	4,617	4,440	4,269	4,105	3,947	3,795	263,632

### 3) 고용효과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고용효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소비지출 수요변화에 의한 고용효과는 <표 18>에 정리된 바와 같음
  - 분석결과,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6,280백명의 고용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충청남도의 고용은 같은 기간 총 3,934백명이 증가하며, 대전
    - 충북 지역은 261백명이 증가하여, 충청권 전체적으로 총 4,194백명의 고용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 외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기타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총 1,117백명의 고용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정부지출 수요변화에 의해 총 969백명의 고용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18> 정부소비지출 수요변화에 따른 고용효과

(단위: 백명)

구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	-	-	-	-	-	-460	-442	-425	-409	-390	-378	-363
충청권	충남	-	-	-	-	-	288	277	266	256	246	237	228
	대전·충북	-	-	-	-	-	19	18	18	17	16	16	15
	(소계)	-	-	-	-	-	307	295	284	273	262	252	243
기타	-	-	-	-	-	-	82	79	76	73	70	67	65
전국계	-	-	-	-	-	-	-71	-68	-66	-63	-61	-58	-56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349	-336	-323	-311	-299	-287	-276	-266	-255	-245	-236	-227	-6,280
충청권	충남	219	210	202	195	187	180	173	166	160	154	148	3,934
	대전·충북	14	14	13	13	12	12	11	11	11	10	9	261
	(소계)	233	224	216	207	199	192	184	177	170	164	158	4,194
기타	62	60	57	55	53	51	49	47	45	44	42	40	1,117
전국계	-54	-52	-50	-48	-46	-44	-43	-41	-39	-38	-36	-35	-969

○ 인구이동에 수반되는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에 의한 고용효과는 <표 19>에 정리된 바와 같음

- 분석결과,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14백명의 고용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같은 기간 충청남도와 대전 · 충북의 고용은 각각 총 221백명과 13백명이 증가하여, 충청권 전체적으로 총 234백명의 고용 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그리고 기타 지역의 고용은 같은 기간 총 42백명이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총 62백명의 고용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9>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에 따른 고용효과

(단위: 백명)

구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	-	-	-	-	-	-16	-15	-14	-14	-13	-13	-12
충청권	충남	-	-	-	-	-	16	16	15	14	14	13	13
	대전·충북	-	-	-	-	-	1	1	1	1	1	1	1
	(소계)	-	-	-	-	-	17	16	16	15	15	14	13
기타	-	-	-	-	-	-	3	3	3	3	3	3	2
전국계	-	-	-	-	-	-	5	4	4	4	4	4	4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12	-11	-11	-11	-10	-10	-9	-9	-9	-8	-8	-8	-214
충청권	충남	12	12	11	11	10	10	9	9	9	8	8	221
	대전·충북	1	1	1	1	1	1	1	1	1	0	0	13
	(소계)	13	12	12	12	11	11	10	10	9	9	9	234
기타	2	2	2	2	2	2	2	2	2	2	2	2	42
전국계	3	3	3	3	3	3	3	3	3	2	2	2	62

- 건설부문 수요변화에 의한 고용효과는 <표 20>에 정리된 바와 같음
- 앞서 설명한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와 동일하게 건설부문 수요변화에 의한 고용효과 역시 전국적으로 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759백명, 기타 지역에서는 1,291백명, 그리고 충청권 전체적으로 2,229백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충청권 중 충청남도의 고용증가 효과는 총 1,969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20> 건설수요 변화에 따른 고용효과

(단위: 백명)

구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159	388	332	319	188	181	174	77	74	72	69	66	64
충청권	충남	113	277	237	228	134	129	124	55	53	51	49	47	45
	대전·충북	15	37	31	30	18	17	16	7	7	7	6	6	6
	(소계)	128	313	268	258	152	146	140	62	60	58	56	53	51
기타		74	181	156	150	88	85	81	36	35	33	32	31	30
전국계		361	882	756	727	428	411	395	176	169	163	157	151	145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61	59	57	54	52	50	48	46	45	43	41	40	2,759
충청권	충남	44	42	40	39	37	36	34	33	32	31	29	28	1,969
	대전·충북	6	6	5	5	5	5	5	4	4	4	4	4	260
	(소계)	49	47	46	44	42	41	39	38	36	35	33	32	2,229
기타		29	28	26	25	24	24	23	22	21	20	19	19	1,291
전국계		139	134	129	124	119	114	110	106	102	98	94	90	6,279

○ 지금까지 설명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고용효과 종합하면 <표 21>와 같음

- 분석결과, 이 개발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5,372백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충청남도의 고용효과는 같은 기간 총 6,123백명이며, 대전 · 충북 지역은 총 533백명으로, 충청권 전체의 고용증가 효과는 총 6,657백명인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수도권 지역은 이 기간 총 3,735백명의 고용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사업의 고용효과 종합**

(단위: 백명)

구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159	388	332	319	188	181	-302	-380	-365	-351	-338	-325	-312
충청권	충남	113	277	237	228	134	129	428	348	334	321	309	297
	대전·충북	15	37	31	30	18	17	36	27	26	25	24	23
	(소계)	128	313	268	258	152	146	464	374	360	346	333	320
기타	74	181	156	150	88	85	166	118	113	109	105	101	97
전국계	361	882	756	727	428	411	329	112	108	104	100	96	92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300	-289	-277	-267	-257	-247	-237	-228	-219	-211	-203	-195	-3,735
충청권	충남	275	264	254	244	235	226	217	209	201	193	186	6,123
	대전·충북	21	20	19	19	18	17	16	15	15	14	14	533
	(소계)	296	284	273	263	253	243	234	225	216	208	192	6,657
기타	93	90	86	83	80	77	74	71	68	65	63	61	2,450
전국계	89	85	82	79	76	73	70	67	65	62	60	58	5,372

## V.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한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하였음
  -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개발사업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 즉 ‘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지출 수요변화’와 ‘② 관련 인구이동에 따른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 그리고 ‘③ 개발사업에 따른 건설 부문 수요변화’의 측면들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함
  - 그리고 이들 효과는 다시 ‘공공기관 이전효과’(①+②)와 ‘건설효과’(③)로 요약되며, 구분된 항목별로 지역의 생산 및 부가가치, 그리고 고용 측면에서 2030년까지 연차별로 분석됨
- 분석된 결과는 앞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종합된 효과만을 설명함(<표 22> 참조)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생산액을 총 61조 6,187억원, 부가가치를 26조 3,632억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고용은 같은 기간 총 5,372백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이 사업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권,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입지하게 되는 충청남도의 경우 같은 기간 총 45조 314억원의 생산증가와 27조 69억원의 부가가치 증가, 그리고 6,123백명의 고용증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생산, 부가가치, 그리고 고용 모두에서 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주로 건설효과가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에 기인한 것임
  - 즉,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로 인해 기존 수도권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공공부문의 행정서비스 제공기능이 충청남도로 이전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ceteris paribus),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의 효과가, 반대로 충청남도에서는 정(+)의 효과가 발생하게 됨
- 그러나 건설사업을 위해 투여되는 개발사업비는 모든 지역에서 공히 정(+)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참고적으로 각 지역별 경제규모가 전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행정중심도시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구체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부가가치효과를 2004년 기준 지역의 경제규모(GRDP)와 비교하면<sup>4)</sup>, 충청권은 이 개발사업을 통해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 총 38.7%의 지역경제 성장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사업의 직접 대상지인 충청남도는 같은 기간 70.8%의 경제성장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지역의 (-) 효과 및 기타 지역의 경제성장 효과 4.1%와 비교했을 때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충청권에 상대적으로 큰 효과가 발생되는 것임

4) 일반적으로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지역 내 산업별 부가가치의 합을 가리키며, 2005년 기준 각 지역별 GRDP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수도권	충청권			기타	전국 계
		충남	대전·충북	(소재)		
2005년 (억원)	3,355,686	381,386	399,259	780,645	2,891,728	7,028,059
GRDP (구성비율)	47.7%	5.4%	5.7%	11.1%	41.1%	100.0%

**<표 22>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 파급효과 분석결과  
종합(2000년 불변가격)**

구분			생산효과 (억원)	부가가치효과 (억원)	고용효과 (백명)
공공기관 이전효과 (A)	수도권		-436,650	-270,951	-6,494
	충청권	충청남도	331,985	217,429	4,154
		대전·충북	29,219	14,819	273
		(소계)	361,203	232,248	4,428
	기타		61,543	38,703	1,159
	전국 계		-13,904	-	-907
건설효과 (B)	수도권		265,146	114,829	2,759
	충청권	충청남도	118,329	52,640	1,969
		대전·충북	43,955	17,151	260
		(소계)	162,284	69,791	2,229
	기타		202,661	79,012	1,291
	전국 계		630,091	263,632	6,279
효과종합 (A+B)	수도권		-171,504	-156,122	-3,735
	충청권	충청남도	450,314	270,069	6,123
		대전·충북	73,174	31,970	533
		(소계)	523,488	302,039	6,657
	기타		264,203	117,716	2,450
	전국 계		616,187	263,632	5,372

- 결론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정(+)의 효과를 발생시키며, 특히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 상대적으로 큰 경제성장 효과를 발생시킴
-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핵심대안으로 제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은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국토의 균형개발이 단순히 지역들의 경제규모나 수준을 특정 수준으로 수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서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각 지역들의 역동적인 발전기회를 조성하고 또한 지역의 경쟁력 증진을 통한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에 걸맞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의 제시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결과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임
  -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경우 이에 부합되는 분석결과가 새로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분석방법론 상에 있어서도 부분균형체계의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적용함으로써, CGE 모형과 같은 일반균형체계 하의 분석결과와 차이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 및 후속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보다 현실적합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함

## < 참 고 문 헌 >

- 국토연구원(2003),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 김의준(2003), “신행정수도 건설의 지역경제효과 분석,”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국토연구원.
- 김홍배(2003), 「정책평가기법: 비용-편익 분석론」, 나남출판사.
- 신행정수도연구단(2003),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 이동수(2003),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추진방향에 관한 발표논문」, 한국행정학회.
- 이선재(2004), “행정수도의 대전·충청권 이전이 지역 및 도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17권 제4호, pp.1099-1120.
- 장철기(2003),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충청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전충남본부.
- 전명진 · 허재완(2003),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파급효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국토연구원.
- 충남발전연구원(2005), 「공공기관 도내입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연구」, 현안과제연구.
- 한국개발연구원(2000),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 구축 및 분석」.
- 한국은행(2003), 「2000년 기준 산업연관표」.
- 한국토지공사(2004), 「지역개발이 지역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토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원회(2005a),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원회(2005b), 「국가균형발전과 제2의 국가도약을 선도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 Polenske(1980), The U.S. Multi-regional Input-Output Accounts and Models.